

2020년 8월 10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복지정책과 과 장 안유영 (044-201-2371), 사무관 정희선(2374) / 제공일 : 8월 7일(총 3매)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여름 휴가철 유실·유기동물 예방 홍보와 지도·단속 실시

《 주 요 내 용 》

- ◇ 유실·유기 예방을 위한 전국 일제 캠페인을 진행하고,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실시
 - 동물 학대·유기 금지, 목줄·인식표 착용 등 펫티켓 준수, 동물 등록 참여 등 캠페인 진행
- ◇ 올해도 하계 휴가가 시작되는 7월 유실·유기동물 발생 증가
 - 최근 3개년(2017~2019년) 7월 평균 발생 두수 대비 7.6% 증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여름 휴가철 유실·유기동물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예방을 위한 전국 일제 캠페인과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올해('20년) 월별 유실·유기동물 구조 추이를 분석한 결과, 7월 유실·유기동물 발생 마릿수가 13,700마리로 연중 최고치로 나타났다.
 - 이는 전월 대비 약 830마리, 올해 3월 대비 약 3,500마리 증가한 규모로, 최근 3개년(2017~2019년) 7월 평균 발생 두수인 12,732마리보다 7.6% 증가한 수준이다.

< 유실유기동물 월별 분포 그래프 >



-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7일부터 지자체 공무원·동물보호단체·동물명예감시원 등으로 합동홍보반을 편성하여 유실·유기 방지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8.30).
- 홍보캠페인에서는 동물 학대·유기 금지, 목줄·인식표 착용 등 팻티켓 준수, 동물 등록 참여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고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 지자체·동물보호단체 등이 함께 동물학대를 집중 단속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동물학대 관련 신고를 독려한다.
-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의 유실·유기는 동물 학대만큼 동물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는 행위이므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유실·유기를 줄여나가겠다”면서,
- “내년부터는 반려견을 구매할 경우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하고, 학대·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관련 통계자료**

구분	'14	'15	'16	'17	'18	'19
동물등록 현황 누계(마리)	887,966	979,198	1,070,707	1,175,516	1,304,077	2,092,163
신규등록 현황(마리)	192,274	91,232	91,509	104,809	146,617	797,081
대행기관(개소)	3,239	3,602	3,450	3,483	3,498	4,161
유실·유기동물 현황(마리)	81,147	82,082	89,732	102,593	121,077	135,791
인도율(%)	13.0	14.6	15.2	14.5	13.0	12.1
분양율(%)	31.4	32.0	30.4	30.2	27.6	26.4
안락사율(%)	22.7	20.0	19.9	20.2	20.2	21.8
동물보호센터 현황(개소)	368	307	281	293	298	284
시군 운영(개소)	25	28	31	40	43	53
위탁보호(개소)	343	279	250	253	255	231
운영비용(백만원)	10,439*	9,745	11,477	15,551	20,039	23,197

*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 중 '14년은 TNR 비용 포함되어 조사

□ **관련 정책현황**

- **(동물등록제)** 유실·유기동물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제***를 전국시행('14)

* 동물등록 마릿수(누계) : ('16) 1,070천마리 → ('17) 1,175 → ('18) 1,304 → ('19) 2,092
미등록 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20만원 / 2차 40 / 3차 60)

- **(구조·보호)** 지자체는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유기된 동물 등을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구조·보호하고 있으며('19년 136천마리), 공고 등의 절차를 통해 '19년 **16,407마리**를 주인에게 인도*

* 인도 마리수 : ('16) 13,678마리 → ('17) 14,914 → ('18) 15,745 → ('19) 16,407

- **(처벌강화)**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을 행정벌에서 **형벌***로 높이고,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2021년 2월 12일 시행)

* 유기 :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강화) 300만원 이하 **벌금**

** 학대 : 2천만원 이하 벌금·2년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3년이하 징역